

미국 경제현황 및 전망

I. 미국 경제 동향

- 미국 경제는 주택건설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3·4분기중 GDP 성장률(전분기대비 연율기준)이 -0.3%를 기록(2008년 2·4분기 2.8%)
 - 개인소비지출은 3·4분기 들어 고용사정 악화, 신용경색 심화, 주가 급락 등으로 28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(2008년 2·4분기 1.2% → 3·4분기 -3.1%)

- 4·4분기 들어 생산 및 소비관련 지표들은 더욱 악화
 - 10월 ISM제조업지수가 198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
 -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1967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(9월 61.4 → 10월 38.0)을 기록하였으며 미시건대 지수도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(70.3 → 57.6)*

- 주택판매는 전반적으로 2005년 이후의 부진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존주택판매는 다소 개선 조짐
 - 9월중 신규주택 판매는 46만호(연간 환산치 기준)로 전년말대비 22.7% 감소(직전 최고치(2005.7월)대비 -66.6%)

- 기존주택 판매는 차압주택 처분*,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 등으로 전년말보다 5.5% 증가한 518만호를 기록
- 주택가격(Case-Shiller 20대도시 평균, 전년동월대비 기준)은 금년 들어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지속(8월 -16.6%)하고 있으나 전월대비 하락폭은 점차 축소
- 금년 들어 비농가 취업자수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실업률도 크게 오르는 등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
 - 9월중 비농가 취업자수는 1~8월(평균 -7.5만명)보다 감소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된 15.9만명 감소
 - 실업률은 지난해 4%대에서 금년 9월에는 6.1%로 높아져 2004. 6월 이후 최고치 기록
- 소비자물가는 8월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
 -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기준으로 7월중 5.6%를 기록한 후 8월과 9월에는 각각 5.4%, 4.9%로 하락
- 에너지 및 식료품가격이 제외되는 근원소비자물가는 금년중 2.3~2.5%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.

II. 향후 미국경제 전망

- 9월 중순 Lehman Brothers 파산 이후 극도로 악화되었던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및 신용경색은 주요국의 정책금리 공조 인하(10.8일), 정책당국의 추가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* 등에 힘입어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

- 10월 중순 464bp까지 치솟았던 TED 스프레드(Libor-T/bill 금리, 3개월물 기준)는 10월말 265bp로 낮아지고 Libor-OIS 스프레드도 동 기간중 364bp에서 239bp로 빠르게 하락
- 그러나 금융 전부문에 걸친 디레버리징 확대, 금융불안의 실물경제로의 파급 등으로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되고 가계 및 기업대출 경색도 지속될 가능성
 - TED 등 신용스프레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
 - 연준의 은행대출 담당자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신용 리스크가 높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
- 금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세 둔화, 기존주택판매 확대 등으로 주택경기가 거의 바닥에 접근하였다는 기대가 확산
- 또한 정책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, GSEs에 대한 지원조치 등도 주택경기 회복에 기여 예상
-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악화 심화, 금융시장 불안 지속, 여전히 높은 주택재고 수준* 등에 비추어 주택경기 부진이 2009년까지 이어지고 회복되더라도 그 속도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
 - IMF(2008.10월)는 주택경기가 2009년에 저점에 도달하고 주택가격은 내년 말까지 10%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
- 미국 경제는 주택경기 부진 및 금융시장 불안의 실물경제 파급 효과로 소비 및 투자가 동반 위축되면서 2009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

○ 개인소비는 에너지 관련 지출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고용여건 악화, 역자산효과, 신용경색 등으로 크게 둔화

* 대부분의 기관들은 2009년중 실업률이 7~8%에 이를 것으로 예상

○ 주택건설투자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투자도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,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감소

○ 수출도 미 달러화의 강세 전환, 세계경제 성장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

□ 10월 들어 중앙은행들의 정책목표금리 공조 인하, 미 연준과 재무부의 금융시장 경색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 시행 등으로 미국 금융시장은 패닉상태에서 벗어나는 모습

□ 단기금융시장 마비를 풀기 위한 정책대응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실물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

□ 많은 전문가들은 수출의 성장세 지지 효과가 약화되는 가운데 가계의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2009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

<뉴욕 사무소 제공>